

광주시, 광주의료원 예타면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이용섭 시장 1호 서명자 참여
예타진행시 수행기간 2년 소요
주요 관공서 내 배너·포스터 게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에 참석하여 1호 서명을 하고 있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올바른광주의료원 설립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가 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이 각각 1, 2호 서명자로 참여하고 정부에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의료원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은 예타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기간만 2년 여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돼 면제가 되지 않으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은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앞으로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 등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10월15일까지 '바로소통 광주'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주의료원' 채널을 검색한 후 링크로 접속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배너와 포스터 등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며 "의료원 예타 면제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함평군 "국산김치, 인증 마크 신청하세요"

전남 함평군은 지난 5일 함평군청 구내식당에서 국산 김치 사용 업소를 인증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현판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6월부터 관내 학교 급식시설, 음식점 등 2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중점 추진, 전일까지 전남도 설정 목표인 60개소에 대한 인증을 마쳤으며 오는 9월말까지 인증 업소를 늘릴 계획이다.

/함평군

영양군 생활지원사 역량강화 교육

영양군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2명의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건강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일 시행한 건강역량강화교육에서는 생활지원사들에게 휴대용 혈압계를 배부하여 정확한 혈압측정법 및 혈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은 배부 받은 혈압계로 직접 독거노인들의 혈압을 관리하고 고위험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메쉬코리아,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사업' 참여

김천 도심 내 물류 네트워크 조성
라스트마일 배송 등 물류 혁신 모색



경북도청이 추진하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에 참여한 참여기업 및 관계자

정보기술(IT) 기반 종합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경북도청이 추진하는 '경북 스마트그린 물류사업'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메쉬코리아는 이번 사업에 마이크로필먼트센터(MFC)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IT 기반 쿵 커머스(더 빠른 온라인 쇼핑) 물류 운영 능력을 선보일 방침이다.

경북도청이 추진하는 '경북 스마트그린 물류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김천시 울곡동 및 황곡동 일대에 도심형 물류센터를 구축, 운영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280억 원 예산이 소요되며, 3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허용과 노외 주차장 부대시설 관련 규정 예외 등 규제 자유 특구의 대대적인 혜택을 받아 운영된다.

메쉬코리아는 울곡동 부지에 MFC

를 구축하고 김천 도심 내 물류 네트워크 기반을 다진다. MFC에서는 IT 기반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토대로 중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AI)을 연동한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디지털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심 내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등 물류 혁신을 함께 선보인다. 자동화된 도심물류센터와 친환경 전기바이크의 운영데이터를 경북도에 제공함으로써 연관 사업의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병준 메쉬코리아 운영본부 본부장은 "국내 최고 혁신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IT 기반의 친환경 통합 물류 서비스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쿵커머스 인프라 운영 품질을 향상하고 부릉의 디지털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MFC 강남 1호점, 송파 2호점에 이어 서초 3호점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순복 기자 sunbok@

여수시 '여수형 마을기업' 모집

여수시가 '여수형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공동체성, 기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법인·단체로, 최소 5명 이상의 회원 출자하고 고용 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대상사업은 지역특산물 가공, 자연자원 활용,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각각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여수(전남)=김홍학 기자 jjiacecom@

"낭만 가득한 목포에서 일주일 살아보세요" 친환경생산자조합 광산구 아이들 건강먹거리 지원

목포시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 진행

목포시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 일주일 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낭만항구 목포의 진면목을 경험하고 감상을 SNS에 공유·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목포를 구석구석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해 4회차로 나눠 운영한다.

1회차는 '어반스케치, 목포를 담다'로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2회차 '목포 9미를 맛보다'는 전남 서남권의 싱싱한

수산물들이 모이는 목포에서 9미(味)를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즐긴다. 3회차는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 목포를 만나다'로 지붕없는 박물관인 근대역사공간을 비롯해 노을과 야경이 아름다운 대남동, 춤추는 바다분수와 해상무대, 불꽃쇼가 한데 어우러지는 해상판타지쇼 등에서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엿본다. 4회차는 '설렘의 시작, 목포문학에 스며들다'로 근대문학의 산실인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열리는 문학바람회에 참가한다.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한다. 1~3회차는 7월 9일~26일까지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이다. 4회차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모집하고, 10월 5~12일 운영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영유아돌봄센터 등 4곳 농산물 기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광주지역 농가들이 광산구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은 지난 5일 수완 장자울마을 한울타리 작은도서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광산구 마을돌봄공동체 3곳과 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기부했다.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은광산구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창립총회 후 설립 등록을 준비 중이다. 조합은 앞으로도 매주 1회 달걀, 버섯, 콩나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광산구 아이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 친환경 농산물 전달식

기부한 농산물은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을 맡고 있는 남도맛집 지원협동조합이 무료로 각 마을돌봄공동체와 이주민영유아돌봄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상표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은 "심심일만 모은 농산물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무안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 무안군이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7월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21년에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다. 부부 중 한 명이 전라남도에 1년, 무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까지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